J Korean Soc Radiol 2023;84(5):984-984
https://doi.org/10.3348/jksr.2023.0105
eISSN 2951-0805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갑상선 고주파절제의 임상 적용: 현재와 미래’ 특별호 발간에 부쳐

백정환 (갑상선 특별호 초청 편집장)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갑상선 고주파절제는 갑상선 병변에 대한 비침습적 치료법으로, 양성갑상선결절의 치료에서 시작되어 갑상선결절과 관련된 미용적 문제와 압박 증상에 대해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갑상선재발암 및 원발암의 치료에도 수술을 대신해서 보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는 갑상선 영상진단 및 비침습적 치료의 전문 학회로, 특히 지난 20여 년간 고주파 절제술의 기술적인 발전과 학문적인 정립에 주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고, 이 분야의 세계적인 학회로 성장했습니다.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는 2012년과 2018년 두 차례 고주파절제 진료 권고안을 발표하여 진료에 표준이 되어왔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양성갑상선결절의 고주파절제를 효과적이고 안전한 시술로 인정하여, 증상이 있는 양성갑상선결절에 대한 고주파절제가 2007년 12월 1일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었습니다. 2017년 5월 8일에는 수술이 불가능한 갑상선재발암에 대해서도 고주파절제가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었고, 2019년 10월 1일부터는 요양급여 적용이 실시되어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갑상선재발암의 고주파절제는 심폐기능 저하 등 전신마취가 곤란한 경우나 수술로 인한 섬유화 등 조직의 유착이 심한 경우에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재발암의 크기에는 무관하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

고주파절제는 양성결절과 갑상선재발암의 신의료기술 등재 이후에 임상적인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국내 연구자 및 고주파를 시행하는 의사들에게 진료와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와 대한영상의학회지는 ‘갑상선 고주파절제의 임상 적용: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특별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갑상선 특집호가 영상의학과 회원님들의 진료에 실제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좋은 종설들을 기고해 주신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 저자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Copyrights © 2023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